# 액션·사극·범죄… 극장가 '3파전' 가족들과 함께 골라보는 재미!

추석 극장가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 영화 세 편이 19일 나란히 개봉해 예매율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극 '안시성'과 '명당' 그리고 '협상'이다.

19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예매율 집계에 따르면 '안시성'은 31.6%로 1위에 올랐으며 그 뒤를 29.1%의 '명당'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협상'은 15.3%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추석 연휴는 23일부터 26일까지지만 실질적으로 관객이 증가하는 건 이번주 금요일인 21일부터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00만 명 내외의 관객이 극장으로 모여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최대 600~700만 명의 관객이 극장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88일간의 위대한 전투 '안시성'**

'안시성'(감독 김광식)이 추석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락 블록버스터로 주목받고 있다. 언론시사회와 관객시사회 이후 폭발적 입소문을 이어가고 있는 '안시성'은 시사회 관람객들의 호평으로 올 추석 최고 기대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쟁쟁한 경쟁 시장에서 '안시성'이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추석 극장가에서 전세대가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오락 블록버스터임이 주효했다.

잊혀진 승리의 역사이자 고구려를 다룬 영화로서 자녀 관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모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특히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전하는 감동은 '안시성'의 입소문 촉매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로 전해지는 88일간의 안시성 전투를 그린 초대형 액션블록버스터 '안시성'이 추석 극장가를 사로잡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학 3부작의 피날레 '명당'**

'명당'(감독 박희곤)은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천재 지관 '박재상'(조승우)과 왕이 될 수 있는 천하명당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대립과 욕망을 그린 작품이다.

'관상' '궁합'을 잇는 '명당'은 제작사 주피터필름의 역학3부작 피날레를 장식한다. '흥선대원군이 지관의 조언을 받아 2명의 왕이 나오는 묏자리로 남연군의 묘를 이장했다'는 역사적 기록에 영화적 상상력을 입힌 작품으로 명당을 통해 욕망을 채우려는 인물들 간의 암투를 메시지로 현대 사회와 소통을 시도한다.

게다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영화라는 점에서 추석 극장가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시대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명당이라는 흥미로운 소재와 이를 둘러싼 드라마틱한 스토리, 시선을 강탈하는 압도적인 비주얼까지 더해진 올 추석 필람 웰메이드 사극으로서 기대를 더하고 있다.

왕권 쟁탈부터 인물들의 팽팽한 대립까지 러닝타임 내내 눈을 뗄 수 없는 재미를 예고한다.

**◆현빈의 악역 변신X손예진의 믿고보는 연기 '협상'**

현빈과 손예진의 만남으로 주목받은 '협상'(감독 이종석)은 태국에서 사상 최악의 인질극이 발생하고, 제한시간 내 인질범 민태구를 멈추기 위해 위기 협상가 하채윤(손예진)이 일생일대의 협상을 시작하는 범죄 오락 영화다. 국내 최초 협상이라는 신선한 소재를 다뤘다.

동시에 베일을 벗게 된 '안시성' '명당' '협상'은 치열한 흥행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개봉 첫날 누가 승기를 갖고 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안시성**

**전세대가 즐기는 오락 블록버스터**
**고구려의 잊혀진 승리의 역사 다뤄**

**명당**

**관상·궁합 잇는 역학3부작 피날레**
**인물들 팽팽한 대립 '관전 포인트'**

**협상**

**현빈·손예진의 만남, 개봉 전 주목**
**국내 최초 협상 소재로 신선함 UP**

# 긴 연휴, 은행업무는 탄력점포로 오세요

**주요 역사·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이자납입은 연휴 이후로 자동연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은행업무를 봐야 한다면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또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미리 대출을 상환해도 되며, 대출 이자는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 같은 금융정보를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은행의 탄력 점포는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탄력점포 및 이동점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만기가 연휴 기간 중이라면 직전 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고 27일에 상환해도 된다. 이자 납입일은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역시 미리 21일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지났더라도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지급주기가 1영업일 단축됐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휴기간이라도 신속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경찰(112)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는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형제나 자매 등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각각 이용하면 보험이 적용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전통문화·민속놀이 '몰'에서 즐기자!"

**체험 클래스 등 이벤트 다양**
**일부 매장선 증정품도 펑펑**

유통업계가 추석 연휴를 맞아 고객을 위한 전통문화 클래스·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추석 이벤트를 준비했다.

**◆IFC몰에서 만나는 전통시장**

여의도 복합쇼핑문화공간 IFC몰은 추석 연휴 동안 몰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청춘마켓'과 어린이 전통문화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21일~25일, L3층에서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신흥 전통시장인 '동진시장'의 청년상인들이 참가하는 'IFC몰 청춘마켓'이 열린다. 청춘마켓은 가죽 및 패브릭 소품, 손뜨개, 캘리그라피 등 청년 예술가가 직접 만든 수공예 예술품과 반려동물을 위한 의류 및 악세사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전통시장 컨셉으로 꾸며지며, 동진시장을 재현한 포토존을 마련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IFC몰 사우스 아트리움 /IFC몰

**◆서예 작가의 가훈 받고, 전통놀이는 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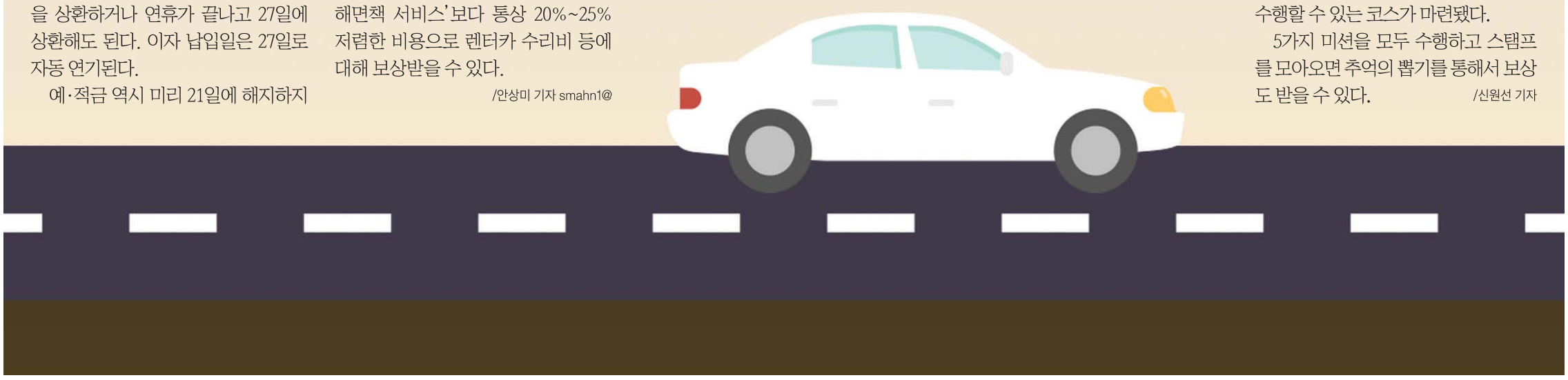
롯데월드몰과 롯데몰(김포공항, 수원, 은평)도 연휴 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몰 김포공항'은 25~26일, MF(지하 1층) MUJI매장 앞에서 가훈 적어주기 이벤트를 선보인다. 당일 구매 영수증 지참 고객을 대상으로 서예 작가가 고객의 가훈을 적어 액자에 담아 증정한다.(1일 80명 한정) 24일에는 한복 착용 고객을 대상으로 놀부부대찌개, 사보텐, 봉추찜닭 등 7곳의 F&B 매장에서 사이드 메뉴 또는 음료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투더 달구벌'에서 7080 추억 여행**

이랜드의 대구 지역 테마파크 이월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백투더 달구벌' 행사를 벌인다. 달구벌은 대구의 옛 별칭으로, 명절을 맞아 고향 대구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70~80년대로의 추억 여행을 마련했다.

옛날 과자를 맛볼 수 있는 철수네 문방구와 곤장치기, 데시벨 측정, 에어펀치 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녀회장댁, 노래 부르고 춤도 출 수 있는 고고장, 제자리 점프, 림보 등 체력 측정을 할 수 있는 추억의 체력장 등 여러가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됐다.

5가지 미션을 모두 수행하고 스탬프를 모아오면 추억의 뽑기를 통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